전 라 북 도 유 일

마취하 전기자극치료 (M-ECT)

이제는 마음사랑병원에서!

심한 우울증, 양극성장애, 조현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로 전라북도에서는 마음사랑병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에 효과적인가요?

심한 우울증 | 양극성장애(조증) | 조현병 | 조현정동장애 | 긴장증

치료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나요?

전기자극치료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많은 환자들이 2–3회의 치료를 받고부터 증상의 호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치료진행 : 일주일에 2~3회, 경과에 따라 5~10회 시행, 20~30분 소요

전기자극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경우

- 약물 등 기존의 치료로 큰 호전이 없는 경우
- 빠른 증상 호전을 필요로 할 때
-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약물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경우
- 식사를 거부하거나 탈진 상태에 이른 경우
- 임신으로 약물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문의 : 063 – 240 – 2100 (외래진료 후 치료 결정)

마음사랑

2019 여름호
VOL.89

마음사랑 소식지는 열린마음, 밝은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대통령이 칭찬하신 마음사랑병원 |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 여성부 인증 | 남녀고용평등 대통령상 수상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
노사문화유공 대통령표창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 평생학습대상 우수상 수상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 근로자 건강증진 시례 우수상 수상 | 기업학습 우수사례 기관 선정 노사 한누리상 수상 |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Cover Story_ 마음사랑병원 '스마일캠페인'
마음사랑병원을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직원들의 친절, 사랑 그리고 새 희망의 미소입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2019년 여름호 VOL.89

발행처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 5534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 / 465-23 Soyangro, Soyangmyeon, Wanjugun, Jeonbuk, Korea 55347
발행인 정운진 **발행일** 2019년 5월 31일 **전화** 063) 240-2100 **팩스** 063) 240-2117
기획·편집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기획팀(홍보위원회) **디자인 제작** (주)크리에이티브애드 창 02) 3446-9379~80

소식지 **여름**

마음사랑

CONTENTS

인사말
여는 글 펭귄밀크 04

건강
건강 길라잡이 왜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가? 06
메디컬 칼럼 계속해서 짜증이 생기는 이유 08

특집
치료 당신이 마시는 술은 가족의 눈물입니다 10

기획
기획이슈 조현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12

공감
동행 소중한 우리는 행복하다 14

브릿지
내 마음의 쉼표 렌즈로 보는 마음사랑병원 16

정 보
휴(休) 입맞춤(오귀스트 로댕) 18

스토리
마음나누기-1 거위의 꿈 20
마음나누기-2 1박 2일, 환자되어 바라보기! 22
열정 36.5℃ 한 알 한 알! 정성담는 약제팀 이야기 24

뉴스&안내
마음사랑뉴스 뉴스/재단소식 26
Information 월례교육 32
셔틀버스안내 33
마음사랑후원회 34
심신치료센터 35

펭귄밀크

남극의 겨울이 시작되는 10월이 되면 황제펭귄들이 바다에서 100km 떨어진 육지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이 영하 50도의 추위를 피해 떠나버린 얼어붙은 빙산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 새끼를 무사히 키우는데 오히려 안전하다지요. 어미가 알을 낳으면 행여 얼음바닥에 닿아 얼어 곯지 않도록 아빠 펭귄이 털이 있는 발등에 알을 놓고 품어 부동의 자세로 알을 보호한다니 지극한 부성애입니다. 무리 전체가 다닥다닥 몸을 붙여 서로의 체온으로 바람을 막으면 안쪽의 온도는 10도쯤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깥쪽의 펭귄이 체온이 떨어질 쯤엔 안으로 들어가고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밖으로 나가, 서로의 위치를 바꾸려 무리지어 빙빙 도는 허들링을 방송에서 보니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극도로 춥고 먹을 것도 없는 최악의 환경에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후손을 번식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공동체 사랑은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아빠 펭귄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엄마펭귄이 바다로 먹이를 찾아 나서는데 만약 어미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빠펭귄은 펭귄밀크라는, 자신의 위와 식도 점막을 녹인 액체를 새끼에게 먹인다고 하네요. 아~ 자식을 위해 신체 일부를 주는 거지요.

SNS에서, 자식의 돌잔치에 처가에서는 10돈짜리 금벨트를 선물해 주었는데 본가의 부모는 한 돈짜리 금반지밖에 주지 않아 속상했다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과 형이 용돈도 드려서 매달 부모님에게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용돈도 드리지 않고 모든 관계도 끊을 작정이라네요. 자신을 낳아 교육하고 장가까지 보냈을 늙고 힘없는 부모를, 열두 달 키운 제 자식 돌잔치에 서운하게 했다고 인연을 끊겠다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고 키우며 사랑스럽다며 유난을 떨 때 '우리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고 하면 '이만큼 예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다지요. 자식 교육시키느라 노년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혹은 노후를 위한 자금까지 털어 결혼시키느라 자신의 삶은 포기했을, 그리하여 힘들고 외롭게 지낼 부모들은 이미 펭귄밀크를 자식에게 준 것은 아닐까요?

존경하는 어르신을 방문하는 날, 건강하시라고 보양제품을 미리 준비하고 또 산속에 계시니 계절과일 이것저것 챙겨 떠날 준비를 하며 문득 돌아가신 양가 부모님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나름 할 도리는 꼭 하자라는 마음가짐이었지만, '지금만큼 속이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 분들이 계신다면 더 잘 해드릴 수 있을텐데... 지금 깨달은 것을 그때 알아 그분들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었다면...' 등등의 생각이 스쳤지요. 네델란드의 델마 판플리트라는 사람이 암에 걸린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 질문이 적힌 공책을 만들어 어머니가 답을 쓰게 했답니다. 어머니는 삶의 고비 고비 사연을 적어 속마음을 털어놓으셨고 사진도 붙여 딸에게 돌려주셨는데, 그걸 다 읽어보니, 어머니가 오롯이 이해되며 서로 통하는 느낌이 강해져 훨씬 가까워질 수 있었다지요. 이런 형식의 책이 '마더북' '파더북'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이제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나왔다 하네요. 저도 사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지네요.

아버지 어머니도 나름의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아픔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날 때부터 아빠 엄마가 아닌 거지요. 부모라는 이름에 갇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을 그 분들을 한 개인, 즉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로 한번쯤 바라보면 어떨까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고생하신 부모님에게, 그동안의 수고에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는 여생을 오로지 당신들을 위해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버이날에 달아드리는 카네이션 백송이보다 훨씬 더 값지고 부모님도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이 땅의 부모님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꽃보다 예쁜 연두'라는 푸르른 6월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글 | **김 성 의** 이사장

왜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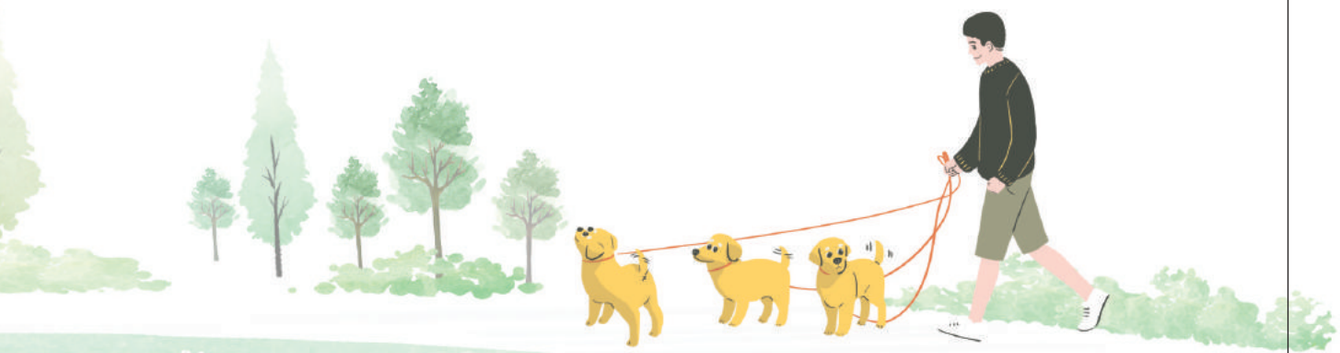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이유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동균 진료과장

요즘 동네나 공원에 산책을 나가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보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약 2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은 거의 1천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인생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이렇게 행복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반려동물은 내가 원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줍니다.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심지어 우리가 없을 때 우리를 그리워하고 기다려주기도 하지요. 몇 년 전에 미국 군인이 파병 갔다가 수년 만에 돌아오자 주인을 기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던 강아지의 모습이 SNS상에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항상 기다려주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파편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반려동물과 언제나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평가합니다. 우리 또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직장 동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잔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그저 곁을 지켜줍니다. 어떠한 평가를 주고받지 않아도 마음에 위안을 주는 관계가 인생에서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자존감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돌봐줘야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서 자기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산책이나 놀이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생존부터 거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돌보고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내 자신이 한 생명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개인은 높은 자기효능감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큰 의미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은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함으로써 높은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된다면 당연히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요즘처럼 파편화되고 개인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보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마음사랑병원은 **〈동물매개요법〉**을 진행함으로써 대인관계나 사회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의사소통능력 및 사회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환자들은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격주 1회, 목요일, 원광대학교 동물매개치료학과 강원국 초빙교수 및 재학생 진행)

계속해서 짜-증이 생기는 이유

언제 짜증이 나는가?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그 감정을 '짜증'이라고 표현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짜증을 비슷하게 정의 내린다.

"마음에 꼭 맞지 아니하여 발칵 역정을 내는 짓. 또는 그런 성미"

수년 전에 '놀면서 돈 버는 해외 아르바이트'라는 기사가 있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값비싼 호텔을 돌아다니며 즐기고 그 경험을 블로그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얼마 전에는 스웨덴에서 월급 263만원, 연봉 인상률 3.2%, 평생 고용과 연금보장을 조건으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여 기사를 자세히 보니, 매일 출퇴근만 하면 되고 업무 시간 중에 어떤 일을 해도 된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꿀알바'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꿈의 직장들이다. 이런 삶을 산다면 매일매일 느끼는 짜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꿈의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짜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인 감정 변화를 겪게 되고 그 중 '짜증'이 솟구치는 경험도 당연히 하게 된다.

필자가 언제 짜증이 많이 났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니, 중 · 고등학교 때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까지 정해진 틀에 맞춰진 교육에 참여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참으며 학교와 학원을 다녔을 때 짜증을 많이 경험했었고, 얼른 대학생이 되어 이 삶을 탈출하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 짜증의 원인이 비교적 명확했고 시간이 지나 대학생이 되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에 내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었고 무사히 학업을 마쳤다. 물론 어른이 되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만 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규한 진료과장

짜증의 원인이 명확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며 평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소위 '이유없이' 짜증이 많아지고 화가 난다면 우울증이나 화병을 고려해봐야 한다. 특히나 평소에 좋아하던 일을 해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을 잘 이룰 수 없다면 위의 질환을 더욱 의심해봐야 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짜증이 날 수 있다. 우연히 같은 시기에 부정적인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짜증이 나고 종종 가정이나 사회에서 마찰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짜증이 줄어든다.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도 짜증이 지속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우울증이나 화병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짜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짜증'은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로 '해결'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 짜증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가 벗어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이유없이 계속해서' 짜증이 나는 경우이다. 글로 쓰는 답은 간단하지만 실제 짜증에서 벗어나거나 치료를 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이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가 짜증의 원인이라면,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을 포함해 전화로 수다떨기, 맥주 마시기, 샤워 중 노래하기 등 자신만의 비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주변 환경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벗어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짜증이라면 원인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

마음사랑병원 고객상담센터 063-240-2114 (24시간 상담)

당신이 마시는 술은 가족의 눈물입니다

글 | 중독치료센터 **이 해 림** 수간호사

2019년 4월 2일은 중독치료센터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20기 전인화교육 수료식〉**이 열렸던 날이기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4년, 마음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는 알코올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기독교국제금주학교(CITS)와 협력하여 12주 과정의 전인화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햇수로는 6년을 향하는 긴 시간이었기에 이번 수료식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물론 알코올중독이라는 병에서의 회복이 이보다 긴 회복 여정을 필요로 하는 질환이기는 하지만! 알코올중독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환자가 넘어지고, 더 많은 환자는 죽음에 이르고, 또 그만큼 환자 가족들은 눈물로도 다 할 수 없는 숱한 아픈 사연들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병원현장에서, 치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내고 있다는 뜻에서,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이다.

더불어 중독치료센터에서 '알코올중독으로부터의 회복과 재활'이라는 두 중심축을 세우고 치료의 중단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김성의 이사장님의 중독 환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이사장님을 만난 것은 중독환자들을 포함한 중독치료센터 치료진에게도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중독치료 해외연수과정에서 만나게 된 기독교국제금주학교 김도형 교수를 본원으로 모셔 강의를 요청한 것이 인연이 되어 전인화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전인화(全人化)교육은 전인격의 변화를 목표로 인간의 고귀한 존재가치를 깨닫게 하여, 전인격의 강화를 꾀하고 잘못된 습관과 행동 및 사고를 바로잡아 성실 근면한 사람이 되게하여, 이타적 헌신자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행복한 삶의 변화를 돕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인화 교육

제 20기 전인화 교육 수료식

기독교국제금주학교 팀

12주의 교육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고, 존재의 세계에서의 인간의 신분과 위치를 점검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중독 물질들을 바라보게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피해를 인지하게 하고, 이 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단주에서의 성공하는 방법들을 찾으며 전인(全人)으로서의 목적설정을 하는 내용들이 다뤄진다.

이번 3명의 수료자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81명이 전인화교육을 수료하였다. 이들 중에서도 꿋꿋하고 단단하게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회복자의 이야기를 적어보겠다. 이날 수료식 단상에 올라 "여러분도 단주할 수 있고, 꼭 해야하고, 같이 하자"라고 격려사를 마친 조OO님은 2014년 8월 본원을 퇴원하였다. 이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현재는 OO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다. 중독자들에게 '단주를 통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의지의 중년 남자이다. 그가 단주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전인화교육을 받던 중 "고집을 술 먹는 데 쓰지 말고 단주하는 데 쓰라"는 교수님의 말이었다고 한다. 의족을 하고 있지만 그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단주의 길을 성큼 성큼 본인의 속도로 가고 있다. 또 다른 회복자인 엄OO님은 본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2018년 3월 퇴원을 기점으로 기독교국제금주학교팀과 함께 생활하며 회복의 길을 가고 있다. 그는 수료식 무대에 올라가 뜨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56세인 제가 한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주하며 온전한 삶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병원의 치료진과 치료시스템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렇다. 누구보다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응원하는 중독치료센터 치료진이 있는 한, 우리 환자들은 중독의 유혹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아야 한다. 기독교국제금주학교팀과 함께 하는 Well-Being의 삶을 우리 환자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중독에서 회복하기 위한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가족이 흘리는 통곡의 눈물을 닦아내는 그 날까지, 앞으로도 중독치료센터는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

제21회 마음사랑 정신건강 세미나

조현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글 | 공공사업팀 **임 솔 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최근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질환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공감보다는 극단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편견이 조장될 수도 있기에, 환자와 그 가족 및 관련 종사자들은 많이 긴장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민한 시기에, '이 뉴스를 접한 환자들은 얼마나 긴장할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조현병 환자들은 얼마나 위축되어 지내고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조현병에 대한 진실을 알리자는 취지로 본원에서는 5월 21일 '조현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의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현병은 공격성에 더 취약한가?

강남인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첫 강의로 세미나의 문을 연 강남인 전문의는 "최근 조현병 환자를 범죄자로 보도하는 뉴스를 접하며,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의 위축된 모습을 볼 때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일반인들과 관련된 폭력관련 사건은 수만 건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 한두 건의 조현병 환자의 사건이 특히 부각되어 보도되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조현병과 폭력행동'의 상관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연구와 메타분석을 통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강의를 통해 조현병이 공격성에 더 취약하다고 보기보다는 폭력행동에 대한 유발인자에 대해 검토하고 치료전략 및 폭력행동의 예측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현병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 : 커뮤니티케어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두 번째 시간은 전준희 센터장님께서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강연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진주 방화사건을 돌이켜보면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구축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기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유관기관의 네트워크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직접적인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며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해주셨습니다. 마음사랑병원에서는 급성기 환자의 치료부터 퇴원 후 사회복귀 까지 돕는 통합재활시스템 '드림브릿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원이 커뮤니티케어의 선두주자로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란?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 보건의료 · 요양 · 돌봄 ·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약물 외의 치료 양상 : ECT(전기자극치료), TMS(경두개자기자극치료)

오규한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세 번째로 전기자극치료와 경두개자기자극치료와 같은 약물 외의 치료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본원의 마취하 전기자극치료를 통해, 심한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으로 고통받던 환자의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약물치료를 해도 반응이 좋지 않거나 또는 부작용이 있거나, 임신으로 약물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등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나 돌아갈래, 다시 사회로

김미경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원장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과 같은 재단인 저희 아름다운세상에서는 치료와 재활을 넘어 회복지향을 목표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의 욕구분석 후 장 · 단기계획을 작성하여 개별활동을 수행하고 사회재활을 위해 [여가활동], [사회기술훈련], [약물관리], [건강관리], [위생교육], [정서지원], [자립지원], [가정방문], [위기관리]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떻게 회복을 지원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과정과 시설 내 회복을 경험한 회원이 작성한 글과 계획표를 공유하였습니다. 실제 대상자의 이야기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강연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강영석 보건의료과장님과 송윤주 정신건강팀장님을 비롯하여 각 대학 교수님들 및 지역 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마음사랑 정신건강 세미나를 함께 준비해주신 분들과 알찬 강의로 조현병에 대한 편견해소 및 새로운 치료, 재활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신 강사님들 그리고 세미나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19년 인산재단 직원 워크숍

소중한 우리는 행복하다!

글 | 기획팀 **성 정 현** 주임

봄기운이 만연했던 4월의 하늘 맑은 날! 〈제24회 인산재단 직원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직원 간 하모니를 이루기 위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던 직원 워크숍! 재단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1박 2일의 일정에 '행복강의'로 힐링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산재단은 마음사랑병원을 비롯하여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와 노인요양시설 사랑드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대둔산호텔'에서 진행되었고,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며, 매순간 마음에는 좋은 느낌! 얼굴에는 미소와 활기! 가 넘쳐났습니다. 워크숍 첫날, 행복마을 동사섭의 이사장님이신 용타스님의 '행복과 이상공동체(행복의 길)' 강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용타스님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 추구임을 강조하며, 직장과 가정에서 행복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행복'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관계의 법칙〉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주고받아야 하며, 나와 상대방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느낌(Good Feeling)을 가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강의 중에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불러주시며 모든 직원에게 좋은 느낌을 전해주셨고, "소중한 나는 행복하다"를 다함께 외치며 특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복을 길을 열어주신 용타스님의 강의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몰입과 열정이 있었으며, 강의를 통해 행복에 한걸음 다가간 느낌이었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소중한 강의를 전해주신 용타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진 화합 행사는 다양한 조별 미션을 통해 직원들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가족이 된 신규직원을 뜨겁게 환대하는 시간이 이어졌고, 기대하던 경품추첨과 함께 화합행사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즐거운 음악! 넘치는 재치! 서로 함께 일심동체! 다함께 에너지 발산! 인산재단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날에는 푸른 하늘과 다양한 색감을 뽐내는 꽃들 사이로 어우러진 '대둔산 둘레길'을 산책했습니다. 청량한 풍경의 산책길을 동료와 거닐며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하는 그야말로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동료애와 애사심을 느낄 수 있었던 워크숍! 직원 모두가 함께할 수 있어서 뜻 깊은 '행복 여행'이라 말하고 싶고, 동료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소중한 나와 우리는 행복하다"

용타스님께서 전해주신 '행복의 길'을 기억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워크숍의 행복감을 만나는 모든 고객과 환자에게 전해줄 것을 다짐하며 일상으로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봅니다.

용타스님은 '행복마을 동사섭'의 이사장으로 행복마을을 찾는 국내 대기업 임원교육 및 여러 기관의 마음챙김 및 행복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저서로는 『용타스님의 행복노트』,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최근에는 '옳다면 바로실천(행동명상)'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용타스님은 목사님과 신부님을 비롯해 종교의 벽과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분들과 함께 행복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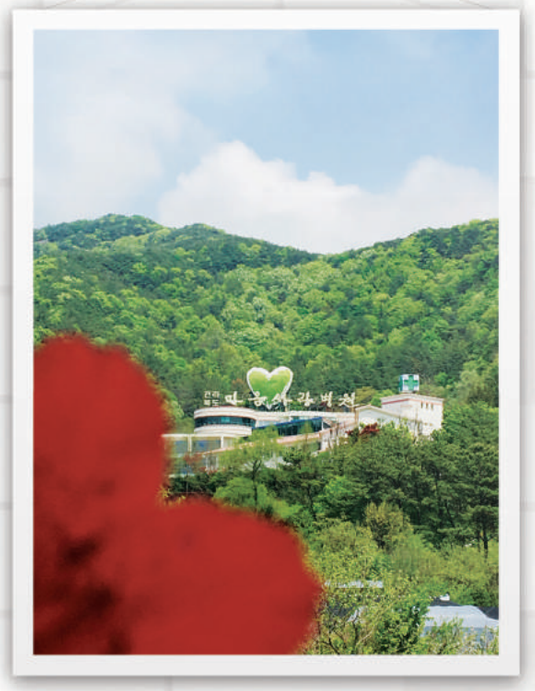
렌즈로 보는 마음사랑병원

나도 찰칵, 너도 찰칵! 여기저기 찰칵 찰칵!

평소에는 당연하게 지나치는 마음사랑병원의 구석구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늘하늘 핀 야생화, 해질녘의 노을, 비 내리는 날의 청량함 등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보기 아깝다고 생각되는, 병원의 아름다움이 담긴 사진을 주제로 〈마음사랑 사진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뜨거운 관심 아래 진행된 공모전에 내부 직원은 물론 많은 외부 고객께서도 참여하여 직접 촬영한 본원의 모습을 응모해 주셨습니다. 수상작품을 뽑아야 하기에 아쉽게도 모든 사진이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작품마다 '마음사랑병원의 숨은 아름다움'이 각자의 시선과 해석으로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상작은 외부평가 60%와 내부평가(직원 투표) 40%를 합산하여 선정되었으며,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박성민 교수(사진 작가)님께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본원에 애정을 갖고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말씀드리며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소개합니다.



최우수상 | **안우리**

〈초록마음과 빨강하트〉

우수상 | **백경림**

〈석양의 그리움〉

장려상 | **이희준**

〈가을이 오면, 우리함께 낮병원〉

장려상 | **김민채**

〈비오는 날의 마음사랑병원〉

장려상 | **안우리**

〈청량한 마음사랑병원〉

크기 181.5 x 112.3 x 117cm | **소장처** 로댕박물관 (Rodin Museum, Paris)

입맞춤(The Kiss) by 오귀스트 로댕

글 | 사랑클리닉 **하 근 혜** 책임간호사

대리석을 깎아 인체의 사실적이고도 부드러운 곡선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연인이 서로를 갈구하며 겹쳐있는 모습을 통해 사랑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관능적이고 강렬한 느낌보다는 현실에서 생생하게 마주하는 사랑의 결과를 잘 표현한 로댕의 대표작을 소개합니다.

작품이야기

이 작품은 남녀의 깊은 입맞춤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어떠한 묘사나 설명도 없지만, 로댕의 다른 작품인 《지옥의 문》을 위해 구상되었다고 합니다. 《지옥의 문》은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서사시 《신곡》 지옥 편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만큼, 이 작품 역시 《신곡》의 에피소드인 프란체스카와 파올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13세기 말 귀족의 딸로, 결혼을 했음에도 남편이 아닌 시동생 파올로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서로 마음을 애태우던 이들은 사랑의 첫키스를 나누며 금지된 사랑을 한 대가로 지옥에서 그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1285년경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이 일화는 단테에게 영감을 주어 《신곡》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서사시를 읽으며 로댕은 입맞춤이라는 조각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처음 로댕의 의도는 지옥의 문을 표현하려 하였고 입맞춤이라는 작품명도 원래는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평론가들은 조각상이 지옥과는 너무나 상반되게 부드럽고 아름다워 제목을 입맞춤으로 바꾸자고 하였고, 로댕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이름을 입맞춤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조각상을 보면, 키스를 하고 있음에도 둘은 옷을 벗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둘의 처절한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서로를 원한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묘사하기 위해 나체로 조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맞춤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남녀의 입술은 닿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체로 서로를 껴안고 마주하고 있지만 영원히 닿지 않을 입술, 곧 화살에 맞아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댕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즉 죄악을 저지르는 순간을 표현하려 하였는데 바로 그 순간이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때, 고통스럽기보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완전한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이야기

로댕은 1840년 11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중산층이었던 어머니와 경찰청 사무원이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0세 때부터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청소년기에 미술과 수학이 전문화된 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예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작품을 출품하였으나 좌절된 이후, 조각가의 조수로 생활비를 벌며 20년간 장식품과 건축장식들을 제출하는 장인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1862년 그의 누이 마리가 수도원에서 세상을 떠나자, 조각을 그만두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사제인 피터 신부가 로댕의 뛰어난 예술능력을 알아채고, 다시 조각을 하도록 격려한 끝에 로댕은 다시 조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 로댕은 이탈리아를 여행하는데, 여행에서 《입맞춤》과 같은 청동상을 제작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조각은 이때부터 내면적인 깊이가 가미된 생명력 넘치는 표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문》의 제작에 착수하는 한편 그의 명성의 중핵을 이루는 갖가지 작품, 즉 《생각하는 사람》 《아담과 이브》 《칼레의 시민》 《발자크상》 등 다채로운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추구한 웅대한 예술성과 기량은 18세기 이래 오랫동안 건축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던 조각에 생명과 감정을 불어넣어 예술의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근대조각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말년의 작업장이었던 파리의 호텔 비룡에 로댕의 미술관을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증되었고, 사망 직전 국립로댕미술관이 건립되어 그의 조각품은 물론 데생 및 수채화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귀스트 로댕
Auguste Rodin

조각가
(프랑스, 1840 ~ 1917)

거위의 꿈

글 | 아름다운세상(인산의료재단 정신재활시설) **문 태 준** 회원

외톨이... 발병하기 전의 저를 회상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입니다.

저는 20대 때 가출해 정신질환이 발병했습니다. 그 후 경상북도에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2년 가량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다 고향인 전주로 돌아와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에 입소하였지만, 당시엔 저 스스로가 병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했고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입소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방황의 시간은 이어졌고 불규칙한 약물복용, 가족들과의 마찰은 재발로 이어져 노숙생활을 전전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동생과 함께 '마지막이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름다운세상에 다시 문을 두드렸고, 2018년 9월 8일 재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재입소를 하며 담당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저는 정신재활과 자립에 대한 장기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세탁기 사용법도 잘 몰라서 세탁도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했던 저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습득을 목표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깔끔해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감이 생겨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보다 회원들을 사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들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저도 사랑받을 수 있고 외톨이가 아닌 것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입소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중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발병하여,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취업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의 모습과 비교가 되며 반성하고 있을 찰나, 이런 저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왔고 마음사랑병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은 환자를 위한 〈통합 재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입소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과 드림브릿지로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에서 맡은 업무는 환경정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과 함께 오랜만에 일을 한다는 두려움에 '그만둘까'라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다가와 "OO님이 있어 병원이 깨끗해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주시는 OO님 덕분에 저 또한 행복해져요."라며 따뜻한 응원으로 용기를 주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께서는 청소 요령을 알려주기도 하고 저의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언젠가 환경정리 업무를 하면서 병원진료를 오신 노모에게 인사를 하며 안내를 도와준 기억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저에게 "여기 병원 직원들은 다 친절하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도 병원의 얼굴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사랑병원의 직원이라는 소속감에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너무 나약했구나'라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외톨이였던 저는 이제 웃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응원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이 계시니까요.

저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름다운세상에 입소생활과 직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재활훈련을 통해 제 힘으로 조그만 독립공간을 이루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회복의 과정을 통해 꿈을 향한 여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글을 빌어 마음사랑병원과 아름다운세상 선생님들, 그리고 회원분들과 동료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본인의 동의 하에 이름과 얼굴을 밝힘을 알려드립니다.

1박 2일, **환자**되어 **바라보기!**

마음사랑병원은 환자들의 병원생활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에 닿는 공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어? 아직 젊은데... 안 되었네..."

환자체험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자, 대답하기 가장 난감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며,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려던 찰나, 옆에 계신 환자분께서 "마음이 아파서 왔겠지, 나도 그래.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그래서 온 거고! 우리는 과일 같아, 과일.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반질반질해 보여서 가게에 돈 주고 집에서 먹으려고 까보면 안에 멍들고 썩어있지 않아? 그런 거지 뭐."

그 순간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환자체험을 하기 전 '어떻게 하면 어색하지 않게 지낼까?' '하루 동안 지내게 될 병실은 깨끗할까?' '옆에 계신 환자분은 어떤 분이실까?' '잠은 편안히 잘 수 있으려나?'와 같은 다소 현실적인 걱정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환자체험을 기다렸던 제가, 잠시나마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간호사로서의 소양을 기르고자 환자체험에 참여하겠다는 처음의 마음가짐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저 또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로서 이들을 더욱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환자체험을 했던 햇살클리닉의 환자분들은 모두 자신만의 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성 문제를 겪은 후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환자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위축된 모습으로 일기만 쓰고 있던 환자분, 다른 이유들로 생활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환자분들... 이들과 함께 TV를 보며 웃고 떠들고, 프로그램실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서툰 솜씨로 종이접기를 배워 환자분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환자분의 일상에 섞여 함께 행동하자, 환자분들이 더 가깝게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웃으며 공감해주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편안한 표정을 지어보이셨습니다.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을 마주칠 때 지금 당장 처지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한 마디의 따뜻한 인사말을 건네는 것, 그들의 생활에 공감하며 부드럽게 다가가 아픔을 표현하도록 격려해주는 행위가 궁극적인 간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는 보호실에서 강박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강박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새하얀 보호실 침대에 누워 자세를 취하고 단단한 끈으로 손목을 묶는 것을 보는 동안 너무나 긴장되었습니다. 30분간 허공을 바라보다, 어찌하면 끈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손을 휘저어도 봤지만, 그렇게 저항할수록 끈은 더욱 단단하게 조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안정실에 격리하는 것은 자·타해의 위험성이 큰 환자에게 적용 하는 조치입니다. 이것이 분명 자신과 타인의 안전뿐 아니라 치료를 위한 것임을 배우고,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는 피부로 생생하게 와 닿았던 활동이었습니다. 1박 2일간의 환자체험은 저에게 수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환자체험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보살피는 마음사랑병원의 간호사로 성장하겠습니다.

글 | 심신치료센터 **정 연 주** 간호사

✚ 환자체험 소감

심신치료센터 **주 진** 간호사

신규간호사로서 간호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환자와 병동에 대한 막연함과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경험한 환자체험은 정신과 환자분들을 이해하고 간호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꿈빛클리닉 **황 다 은** 간호사

정신과를 배우고자 하여 지원했음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기에 무섭지는 않을까'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를 새로운 환자라며 따뜻하게 맞아주고 입원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며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환자들을 보며, 누구보다 순순한 이들의 마음에 감동하였습니다.

마음클리닉 **박 현** 간호사

환자의 회복을 위해 애정과 따뜻함을 담아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 불편함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정성스러운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병동 직원들은 제게 어떤 치료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자부심 넘치는 간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되새기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심신치료센터 **권 옥 희** 간호사

'폐쇄적인 분위기', '우울한 치료환경', 제가 기존에 정신병원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입원실보다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 놀랐습니다. 채광이 잘 드는 큰 창문에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입원 환경까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클리닉 **최 유 빈** 간호사

간호사가 되기 전 간호학생으로 마음사랑병원에 실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환자분들에게 병원에 입원한 이유를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으셨는데, 이번 체험에서는 입원하게 된 이유와 왜 정신적으로 힘든지에 대해 깊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진으로서 하루빨리 이들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알 한 알! 정성담는

약제팀 이야기

글 | 약제팀 **홍 정 옥** 약사

매일 아침 아름다운 새 소리를 들으며 출근을 합니다. 새들뿐 아니라 여러 가지 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설레기까지 합니다. 또한 피톤치드를 잔뜩 내뿜는 나무숲 언덕에 위치한 마음사랑병원은 참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하는 저는 마음사랑병원 약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제팀에는 저를 포함해 약사 2명, 간호조무사 선생님 2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모두가 친절하고 성실하며 업무를 향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 출근하기로 소문난 우리 팀은 아침 일찍 약국 문을 활짝 엽니다. 저희의 업무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600여 명의 환자에게 투약해야 할 약을 매일 조제하고 검수하여 병동에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외래환자들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하여, 이들이 어려움 없이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에게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복약지도를 합니다.

정신과 환자에게는 약물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의 원인은 뇌의 기능이상 및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그리고 체질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관여하므로 뇌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가 중요합니다. 의사선생님의 치료계획에 맞게 약을 효과적으로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되어 입원기간을 줄일 수 있고 재발이나 재입원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많은 환자에게서 환청이나 망상이 줄어들고, 불안함과 긴장감이 완화되며 짜증이나 화, 공격적 행동, 부적절하고 이상한 행동 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면서 약물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복용한 직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약도 있으므로 하루 이틀 먹어보고 효과가 없다고 약 먹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약을 복용해서 증세가 좋아졌다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갑자기 증세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 의사선생님의 지시없이 약을 중단한다든지 용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약국에서는 투약구 창을 통해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만납니다. 산책시간에 병동에서 내려와 자판기 커피 한잔을 건네며 고맙다고 하는 환자들의 순박한 눈빛에서 관심과 사랑이 절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허리로 아픈 아들을 위해 약을 받으러 오시는 팔순 노모의 얼굴에서 애틋함과 간절함이 어려 있습니다. 강박과 불안감에 진료받으러 오는 청순한 얼굴의 소녀가 또래와 어울리며 발랄하고 당당하게 살고자하는 소망을 지켜보면서 우리 약국 선생님들은 다짐합니다. 환한 미소와 친근한 목소리로 응대하며 지지하고 공감하면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이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홍정옥 & 이한울 약사〉

Maeumsarang News

마음사랑 뉴스

마음사랑병원 신규직원 멘토-멘티 결연식

신규간호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장 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2019년 멘토-멘티 결연식〉이 3월 12일 진행되었다. 멘토는 멘티의 역할 모델로서 업무에 대한 조언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해주고, 멘티는 멘토의 조언을 바탕으로 조직의 일원으로 성장하며 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결연식은 멘토-멘티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멘토링 선서와 사랑의 허그를 나누며 언제나 상호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마음사랑병원 전북지역 정신건강 직역교육 진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을 위한 새로운 교과과정인 직역교육(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연합)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본원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교육에는 40여 명의 수련생이 참여한 가운데 〈타 직역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업〉이라는 주제로, 본원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간호부장 신정은, 임상심리실장 이금단, 사회사업팀장 송석주)이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각 직종의 전문요원이 공통 및 개별업무를 이해하고 협업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으며, 업무에 대한 참관 및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마음사랑병원 마음사랑 가족야유회

4월 25일 마음사랑병원의 환자와 가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야유회'를 다녀왔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야유회에서는 본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 퇴원 후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여 생활하는 회원들이 한데 모여 봄의 정취를 만끽하였다. 마음사랑 가족야유회는 매월 열리는 가족교육의 일환으로 가족 간 유대감을 증진하고 환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

마음사랑병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식 체결

본원과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4월 29일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신건강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대한 방향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음사랑병원

어버이날 맞이 〈5월 愛, 감사 효 행사〉 진행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마음사랑병원에 입원중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5월 愛, 감사 효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가족을 대신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어르신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시간을 시작으로, 감사편지 낭독, 케익 전달식, 낮병원 회원의 합창 '어버이 은혜', 시 낭독 등 다양한 구성으로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남겨드렸다.

마음사랑병원

이건학 진료부장, 〈대한병원협회장상〉 수상

5월 2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라북도병원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이건학 진료부장이 '대한병원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이건학 진료부장은 최선의 진료를 통해 전라북도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지역의료계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이번 수상은 국민보건향상과 병원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 / 단 / 소 / 식

노인요양시설 사랑드림

실내 채소밭 경작

사랑드림은 어르신들의 오감의 감각기능을 자극하고,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활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내 채소밭을 운영하고 있다. 상추, 고추 등 다양한 채소를 기르고 있으며 새싹 밀, 새싹 브로콜리 등 총 다섯 가지의 새싹도 재배하고 있다. 또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이용하여 새싹 비빔밥, 상추쌈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실내 채소밭 경작에 대한 어르신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설명회 진행

회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장려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를 초대하여 취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공단의 주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회원들의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지원고용, 인턴제 등의 사업을 소개하였으며, 장애인의 빠른 직업적응을 위해 만들어진 전주맞춤훈련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취업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 교류가 이어졌으며, 특히 가족교육에 참석한 보호자들은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 시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취업활로를 더 개발하고 확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사랑 실무위원회 간담회 운영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효율을 위한 〈생명사랑실무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생명사랑실무위원회는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의뢰연계기관, 자원지원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자살 위험자 사례개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례회의에서는 10개의 기관에서 참석하여 사례회의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자원연계의 장이 되었다. 향후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희망메시지를 이용한 생명존중 등굣길 캠페인 '괜찮니'

센터는 관내 초등학교 3개교(동초, 북초, 수성초), 중학교 3개교(배영중, 학산중, 정일여중)에서 희망메시지를 이용한 〈생명존중 등굣길 캠페인, '괜찮니'〉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생명사랑지킴이 청소년과 학교 관계자,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하였다. 특히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을 위한 배너와 피켓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친구에게 희망메시지 작성하기,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을 안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상태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제8회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걸기행사 진행

4월 13일 전주롯데백화점 앞 천변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제8회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걸기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행사는 치매예방체조와 4km 코스 걷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대행사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서 정신건강상담 및 의료지원 부스를 운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및 유관기관에서 치매상담, 치매예방관련 정보제공 등 다양한 홍보부스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센터는 전북도민이 치매예방과 극복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건강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치매관리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치매전문인력교육 실시

도내 치매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4월 18일과 1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126명을 대상으로 〈치매전문인력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은 '치매의 개념 및 치료과정'과 '치매 돌봄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센터에서 치매전문강사로 위촉한 우수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및 의료 서비스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종사자의 자신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길 기대해본다.

마음사랑병원 월례교육

월.례.교.육 3월

유럽인문여행 및 관점의 전환

3월 월례교육은 〈유럽인문여행 및 관점의 전환〉의 주제로 이태훈 칼럼리스트가 진행하였다. 강의에서 이태훈 강사는 다빈치, 클림트, 피카소, 드가 등 유명화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명작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해당 그림이 당시 유럽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또한 알려진 다양한 작품을 살펴보며 창의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관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해당 교육이 인산재단 직원에게 인문학적 사고와 창의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월.례.교.육 5월

건강한 가족리더십과 회복탄력성

*김영아 교수는 『나와 잘 지내는 연습』『아픈 영혼, 책을 만나다』 등의 저서를 발간하였으며 치유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5월 교육은 김영아 교수가 〈건강한 가족리더십과 회복탄력성〉의 주제로 강연하였다. 김영아 교수는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3가지 요소로서 자기조절능력(감정조절력, 충동억제력, 원인분석력), 대인관계능력(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긍정성(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을 갖출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기분화'를 언급하며 개인의 내면에서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감정 반사적으로 대응하기 않고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키는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가족의 정서 회복과 가족간 원활한 소통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이번 교육이 본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든든한 지지와 진정성 있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어지길 바래본다.

마음사랑병원 셔틀버스운행안내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마음사랑병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은 셔틀버스(낮병원 포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 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병원 출발	08:30	08:40	09:30	10:20	10:45	11:45	12:20	13:30	14:00	14:30	15:30	16:10	16:45
소양(면사무소)													
고려병원 앞													
안골(파리바게트)													
모래내(농협)	08:55		09:55		11:10	12:10		13:55		14:55	15:55		17:10
안골(향연유외과)	09:00		10:00		11:15	12:15		14:00		15:00	16:00		17:15
수한방 병원 앞(고려병원 건너편)	09:04		10:04		11:19	12:19		14:04		15:04	16:04		17:19
소양(농협)	09:11		10:11		11:26	12:26		14:11		15:11	16:11		17:26
병원	09:15		10:15		11:30	12:30		14:15		15:15	16:15		17:30
전주역(웨딩의전당 건너편)		08:55		10:33			12:33		14:13			16:27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		08:57		10:35			12:35		14:15			16:30	
안디옥 교회 정문		09:00		10:36			12:36		14:16			16:31	
전주덕진소방서 옆(전주시 재활용센터)		09:03		10:37			12:37		14:17			16:32	
롯데렌터카 전주지점 (삼성증권 전주지점 옆)		09:10		10:43			12:43		14:23			16:38	
고속버스터미널(택시승강장 건너편 천변)		09:12		10:44			12:44		14:24			16:41	
시외버스터미널(중앙병원)		09:15		10:46			12:46		14:26			16:43	
한국은행 옆(공간타일도기)		09:20		10:50			12:50		14:30			16:45	
모래내(농협)		09:25		10:55			12:55		14:35			16:50	
안골(향연유외과)		09:28		10:58			12:58		14:38			16:53	
북일초등학교 정문(수협)		없음		11:00			13:00		14:40			없음	
대자인 병원 정문(자인약국)		09:31		11:02			13:02		14:42			16:56	
전주역 건너편(서강재활사)		없음		11:03			13:03		14:43			없음	
굴다리(CU 편의점)		09:35		11:07			13:07		14:47			16:58	
병원 도착		09:45		11:20			13:20		15:00			17:10	

*공휴일은 운행되지 않으며, 토요일은 오전까지 미니순환버스만 운행됩니다.(미니순환버스 : 1, 3, 5, 6, 8, 10, 11, 13회 / 대형버스 : 2, 4, 7, 9, 12회) *운행 시간표 및 노선은 바뀔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 063-240-2100)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평화동방면)

노 선	1회	2회	3회	4회
병원 출발	8:40	10:20	14:15	16:10
슈퍼돔 나이트	8:51	10:31	14:26	16:21
아중리 지하보도(파리바게트)	8:53	10:33	14:28	16:23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8:56	10:36	14:31	16:26
현대자동차(KT옆)	9:00	10:40	14:35	16:30
경원동 기업은행	9:04	10:44	14:39	16:34
남문치과	9:06	10:46	14:41	16:36
서서학동 화신탕	9:08	10:48	14:43	16:38
평화동 지하보도(전주농협)	9:10	10:50	14:45	16:40
티파니힐	9:12	10:52	14:47	16:42
광진공작아파트 버스 승강장	9:15	10:55	14:50	16:45
남양황실아파트 버스 승강장	9:18	10:58	14:53	16:48
화산체육관 버스 승강장	9:22	11:02	14:57	16:52
한일고 지하보도	9:25	11:05	15:00	16:55
금암동 우성 밧데리	9:27	11:07	15:02	16:57
전북은행 본점 버스 승강장	9:31	11:11	15:06	17:01
전북대병원 입구 버스 승강장(금암고물상)	9:34	11:14	15:09	17:04
대자인병원 응급실	9:37	11:17	15:12	17:07
전주역(서강재활사)	9:39	11:19	15:14	17:09
굴다리(CU 편의점)	9:42	11:22	15:17	17:12
병원 도착	9:50	11:30	15:25	17:20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나눔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마음사랑병원 마음사랑후원회

'마음사랑후원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인간사랑'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 및 보호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마음사랑후원회'**는 내부 직원 및 외부 후원자 약 500명이 정기적으로 후원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참여방법 (☎ 마음사랑병원 사회사업팀 : 063-240-2162)

정기후원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직접 지정해 주신 계좌에서 매월 5,000원 이상이 자동이체 되는 방법입니다.
비정기후원 원하시는 금액을 직접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농협 : 351-1066-5417-13 마음사랑후원회)
물품후원 의복, 식품, 도서 및 생활필수품 등 환우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2019년 2월~2019년 4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명단

자원봉사자 총 255명

[생활지원_헤어나눔공작소] 강남정, 강묘숙, 강선자, 강성자, 강영란, 김동해, 김리환, 김문선, 김미정, 김보영, 김은주, 김정자, 김종후, 김해정, 김현숙, 박광호, 박수현, 박정순, 배찬은, 서춘애, 설동원, 소길례, 신별룡, 양은옥, 양인숙, 양 현, 엄문희, 유소영, 육기순, 윤옥임, 윤정희, 이순의, 이유숙, 이 윤, 이지선, 이태곤, 이해숙, 임갑정, 장성자, 전은경, 정선아, 정수미, 정해화, 정혜인, 하선희, 한민규, 황재희 **(47명)**

[생활지원_식당] 국인숙, 권쟁남, 김순옥, 김순자, 김용희, 김연순, 라봉자, 박영순, 박황진, 배경옥, 여선희, 유금순, 이길순, 이영로, 이영순(63), 이종화, 이순단, 이순예, 이연님, 육복순, 정순례, 홍옥희 **(22명)**

[생활지원_개인자원봉사자] 김영환, 노희찬, 박은규, 이도전, 이준산 **(5명)**

[정서지원_기독교] 김광일 목사, 백은혜 목사, 신민정 목사, 유순혜 목사, 전영철 목사, 조용희 목사, 길태식, 김광서, 김정연, 류시영, 박정순, 송진화, 신은순, 신필호, 양선자, 오봉애, 윤태숙, 임춘희, 장형규, 전영철, 정인기, 조용희, 최영옥 **(23명)**

[정서지원_천주교] 소양성당 이장춘(프란치스코) 신부, 서용자 **(2명)**

[정서지원_다도] 김금남, 김찬림, 이미경, 최희윤 **(4명)**

[정서지원_공연봉사단] '늘푸른 합창단', '완주 문화의집-국악공연', '소리에 반하다', '전북사랑연예봉사단', '호산나 공연', '시니어클럽', '상록어울림 아카데미', '유사랑 한마음 예술단' **(약 140명)**

[자원봉사자(학교)_전주대] 강하나, 김송현, 김학성, 박지혜, 이여름, 최문선, 동수화, 박소현, 박지현, 임영은, 최유미, 최하선 **(12명)**

외부 후원 총 445명

유천보그린, (주)내외정보기술, (주)동남의료약품, (주)보감남원지점, (주)인스니인, 가재숙, 강경옥, 강경희, 강나루, 강수경, 강영석, 강인숙, 강찬오, 강채은, 강화숙(장원유니폼), 강희봉, 경대용, 고병훈, 고석오, 고순화, 곽동호, 곽동훈, 곽명영, 곽태연, 구도형, 구유준, 권선미, 권용주, 길정호, 김경조(우아식품), 김경희, 김광현, 김구형, 김기덕, 김기봉, 김남일, 김내영, 김달진, 김대용, 김동렬, 김동철, 김미경, 김민재, 김민채, 김병직, 김복순, 김석진, 김성수, 김성숙, 김성순, 김성식(975), 김성태, 김소연, 김소형, 김수연, 김순희, 김승민, 김승재, 김시연, 김안경, 김연아, 김영민, 김영실, 김영우, 김영자, 김영화, 김옥단, 김옥심, 김용문, 김용옥, 김용진, 김용현, 김원주, 김윤경, 김윤정, 김윤호, 김은경, 김은애, 김은지, 김정남, 김정수, 김정연, 김정은, 김정춘, 김정학, 김정환, 김종국, 김종원, 김준곤, 김중은, 김지수, 김지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형, 김찬영, 김창헌, 김충만, 김학근, 김현기, 김현민, 김현자, 김현희, 나경미, 나기원, 나의현, 노경찬, 노옥임, 노옥희, 노진성, 노현정, 노현민, 도윤약품, 류세나, 류형선, 모은영, 문기영, 문리리, 문미경, 박경철, 박근영, 박금옥, 박기성, 박문규, 박병섭, 박병순, 박병준, 박병철, 박삼례, 박삼환, 박상규, 박세희, 박순례, 박영근, 박영희, 박요창, 박윤희, 박인경, 박자순, 박정효, 박종순, 박지희, 박천미, 박한철, 박현경, 박현숙, 박현정, 박혜빈, 배숙향, 배지영, 백도현, 백석기, 백선종, 백수경, 백조아, 백현찬, 변동균, 변오석, 서경태, 서다비, 서소현, 서숙연, 서정원, 선옥녀, 선진태, 성백조, 성병일, 성병주, 성병희, 성실, 성윤정, 성진명, 손주완, 송명영, 송민선, 송병섭, 송선희, 송애란, 송영란, 송원선, 송인미, 송중훈, 송지연, 송호, 신명옥, 신영이(어진유통), 신은옥, 신필호, 신현호, 신혜진, 신희숙, 심경숙, 안미영, 안상옥, 안승규, 안시현, 안정희, 안종석, 안태훈, 안훈규, 양국현, 양승주, 염상국, 염혜영, 염훈남, 오복순, 오은영, 오재천, 오청희, 오혜진, 왕순임, 용동기, 용태진, 우옥녀, 우왕균, 원경화, 원다혜, 위영욱(녹십자), 유능한, 유도근, 유수연, 유은서, 유재명, 유지민, 유창균, 유충열, 유해광, 유현희, 유형규, 유호원, 육희정, 윤광수, 윤남순, 윤면재, 윤미라, 윤석용, 윤성숙, 윤창수, 윤혜진, 윤훈경, 은상봉, 이가은, 이경은, 이광배, 이금단, 이기성, 이남숙, 이대한(1963), 이대한(1984), 이동규, 이동명, 이득녕, 이미림, 이미숙(1963), 이미숙(1968), 이민자(1989), 이민자(1991), 이범식, 이법영, 이병관, 이병도, 이성교, 이성두, 이성섭, 이성자(1970), 이성자(1972), 이성철, 이수진, 이승연, 이승철, 이승환, 이연수, 이연숙, 이영광, 이영우, 이영일, 이영자, 이영희, 이옥순, 이옥심, 이유나, 이은미, 이은지, 이은희, 이의철(한주상사), 이인재, 이장혁, 이재건, 이재은, 이재현, 이정덕, 이정숙, 이정우, 이정은, 이종배, 이종원, 이종철, 이준, 이준영, 이준휘, 이지명, 이지현, 이진희, 이창수, 이창원, 이치섭, 이태형, 이현민, 이현승, 이현주, 이형구, 이형규, 이효숙, 이후정, 이희신, 이희진, 임경숙, 임경환, 임대식, 임대영, 임두수, 임미령, 임영석, 임영수, 임옥희(정이영), 임용환, 임인서, 임종학, 임지영, 임창진, 임현석, 장선호, 장연, 장영진, 장용수, 장은옥, 장지숙, 장지훈, 장한보, 전북종합박스, 전석원, 전세환, 전은신, 전현수, 전현순, 전환흥, 정경미, 정미라, 정병우, 정수경, 정순심, 정순태, 정승현, 정영석, 정은누리, 정윤숙, 정은빈, 정의성, 정진권(보성수산), 정충용, 정해운, 정혜경, 조명희, 조미영, 조선우, 조순형, 조우진, 조윤호, 조재익, 조형운, 조훈, 지동현, 진공숙, 진영준, 차동훈(서울우유이중보급소), 차연수, 채길정, 채효선, 천창영, 최고은, 최동선, 최동현, 최란, 최명길, 최미숙, 최미영, 최상수, 최수석, 최영숙, 최영식, 최영철, 최용갑, 최용석, 최윤경, 최윤규, 최은석, 최은성, 최진기, 최현식, 최현준, 킴스메디칼, 하나구급센터, 하남주(하이푸드), 하태현, 하혜란, 한길순, 한대진, 한병길, 한성종(주)태종, 한솔에이팩스, 한승희, 한시종, 한신혁, 한영자, 한재근, 한정순, 한정희, 한현수, 허미란, 허요한, 현희성(부귀농협김치), 형명자, 홍문기, 홍상표, 홍선화(1973), 홍선화(1985), 홍인천, 홍지용, 홍진성, 홍초롱, 황성, 황철현, 황하나

내부 후원 총 184명

강경식, 강남인, 강서연, 강성환, 강수연, 강승민, 강애슬, 강원화, 강정선, 강혜진, 고소영, 고정선, 곽유미 곽준, 권옥희, 김만, 김민진, 김병배, 김복덕, 김서정, 김서현, 김성수, 김성심, 김성의, 김소리, 김수빈, 김수용, 김숙자, 김연아, 김예은, 김왕수, 김윤종, 김윤호, 김은애, 김은진, 김정은, 김지우, 김지태, 김현성 김현수, 김현희, 김형태, 김화정, 나설이, 당명일, 모은희, 문진선, 박민실, 박상철, 박소라, 박용현, 박윤섭, 박정은, 박지영, 박현, 박혜인, 배윤례, 배은희, 백경림, 백주혜, 백철호, 서지혜, 서지훈, 성정현, 성홍기, 소정선, 손성순, 송명재, 송봉용, 송석주, 송혜정, 신연숙, 신정은, 신혜연, 심병산, 심성주, 안진용, 양혜주, 염재현, 염정휴, 오남수, 오영심, 오유림, 오지애, 오진승, 용태영, 우지연, 위경진, 유미순, 유슬기, 유연심, 유현아, 유혜림, 윤경선, 윤여민, 윤홍익, 이건학, 이구현, 이금단, 이나라, 이민섭, 이민정, 이세현, 이수진, 이승연, 이승현, 이승희, 이아름, 이윤진, 이은자, 이장효, 이정명, 이정민, 이주혁, 이지연, 이진영, 이진주, 이춘재, 이하정, 이한웅, 이해림, 이현정, 이혜숙, 이화자, 이희선, 이희정, 이희준, 임덕임, 임동균, 임솔미, 임지은, 장웅진 장유미, 장현두, 장혜숙, 전대원, 전은지, 전혜미, 정경남, 정보라, 정상균, 정연숙, 정연주, 정은진 정으뜸, 정의성, 정재훈, 정현순, 정혜정, 조대성, 조아라, 조윤, 조인정, 주진, 진연호, 천영자, 최강현, 최금철, 최선미, 최세종, 최유빈, 최인숙, 최채희, 최하은, 최한재, 최현규, 최혜석, 하근혜, 하영숙, 한명일, 한상수, 한영은, 한지수, 함수경, 허진아, 홍바다, 홍선우, 홍성호, 홍윤미, 홍정숙, 홍정욱, 황경진, 황다은, 황승연

* '마음사랑 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 '마음사랑 후원회'는 6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후원회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환우의 가족지원비, 생필품 지원비, 연 1회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행사, 정신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정신보건 유관기관 지원 등 다양한 곳에 소중하게 쓰입니다.

조기집중치료! 가장 중요합니다!
병이라고 의심되는 순간
바로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빠른 회복을
마음사랑병원 이 돕겠습니다!

마음사랑병원 급성기 집중치료
심신치료센터

급성기 입원 환자의 다학제적 평가를 통한 초기진단과 치료계획에 의해
약물치료,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전문화된 집중치료를 시행합니다.

환자중심의 치료환경을 갖춘 급성기 집중치료병동으로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상주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신속하고 전문화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
'전문 약물 치료'를 통한
뇌의 불균형 회복

+

유지치료 및 재활치료
환자 개인별로 맞춤화된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정신사회재활

☎ 심신치료센터 063-240-2230 ☎ 입원상담 063-240-2114 (고객상담센터)